

| 질병관리 |

2004년 소 주요 질병 발생 상황



배유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병리와 연구사

최근 소의 주요 질병 발생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 단독 감염보다는 복합감염 예가 늘고 있어서, 양축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질병과 세균성 질병이 복합적으로 감염되어 치료가 되지 않아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4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 결과 나타난 소의 주요 질병 발생 상황과 이들 질병의 치료 및 예방대책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양축가 및 방역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원인체별 소 질병 발생 상황

2004년 소 질병의 원인체별 질병 발생상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35%로서 가장 많았고, 세균성 질병과 기생충성 질병이 각각 7%로 나타나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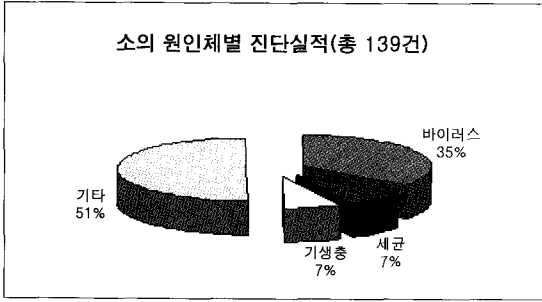


표1. 2004년 원인체별 소의 질병 발생 상황

2. 소의 주요 질병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대 설사 바이러스성 질병이 가장 많이 진단되었다. 즉 로타바이러스(BRV)감염증이 19건으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 감염증 (BVDV) 과 코로나바이러스(BCV) 감염증이 각각 14건과 10건 확인되어 야외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임을 확인하였다. 세균성 질병으로는 유·사산을 일으키는 질병인 부루셀라병(Brucellosis)이 3건 확인되었다. 그 밖에 기생충성 질병으로는 부루셀라병과 더불어 유·사산의 주요 원인인 네오스포라병(Neosporosis)이 8건 진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설사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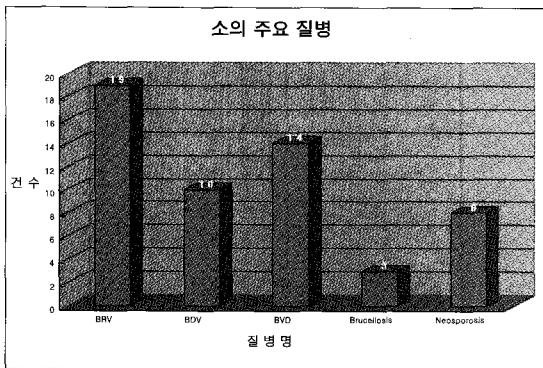


표2. 소의 주요 질병 발생 상황

3. 소 설사병의 치료 대책

설사를 하는 송아지는 즉시 건강한 우군으로부터 더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시켜야 한다. 또한 환축을 치료하거나 먹이를 주기 위해서 환축과 접촉한 후에는 장화나 옷을 갈아입거나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젖먹이 송아지는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하므로 젖먹이 송아지가 설사할 경우, 먼저 따뜻하게 보온해 주고 적당한 습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설사하는 송아지는 장의 소화기능과 흡수능력이 떨어지므로 대용우나 어미젖을 12~24시간 동안 먹이지 않아야 하고 그 대신 포도당과 전해질을 복합처방한 것으로 즉시 장에서 흡수가 쉽게 되는 약재를 먹이는 것이 좋다. 설사가 멈춘 후 첫날에 체중의 8%에 해당하는 어미 젖을 1일 3회에 걸쳐 조금씩 먹이고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서 정상량을 급여토록 하는데 이때 어미젖을 물이나 전해질 용액에 희석하여 급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설사로 인해 탈수가 심할 경우에는 탈수를 완화시키고 전해질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링겔액, 포도당 및 등장중조액을 주사해 주도록 한다. 특히 초임우는 혈청내 면역물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임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설사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 소 설사병의 예방대책

송아지 설사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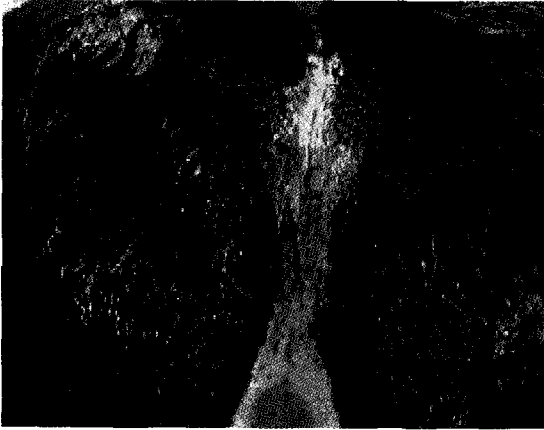


사진 1. 소바이러스성 설사(BVD)에 감염된 소.
엉덩이 피부에 많은 양의 설사변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 2. 소바이러스성 설사(BVD)에 감염된 송아지의 4위.
점막의 심한 궤양을 볼 수 있다.

1) 병인체의 외부침입으로부터 송아지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 가) 분만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어미소의 유방과 유두 등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출생한 송아지는 가급적 깨끗하고 소독된 우리에 격리사육하도록 한다.
- 라) 사료통과 물통은 깨끗하게 유지하여 병원체가 섞인 분변이나 오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한다.

2) 충분한 초유와 영양을 공급

분만된 송아지는 24시간 내에 어미로부터 초유를 섭취하여 장관 내에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분만된 송아지를 잘 관찰하여 초유를 먹지 않을 경우 2시간 내에 송아지의 체중Kg당 50ml의 초유를 인공적으로 포유시켜야 한다.

3) 백신접종

- 가) 바이러스성 설사의 경우 치료약이 없으므로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 나) 송아지의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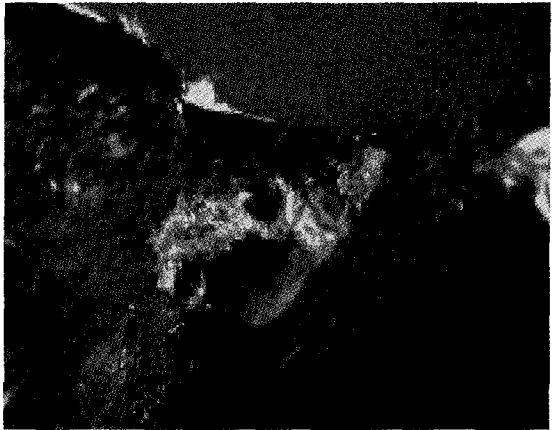


사진 3.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송아지의 사진.
꼬리와 엉덩이에 노란색 설사변이 묻어 있다.

위해서 임신우에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초유를 통한 고도의 모체이행항체가 일정기간동안 송아지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방약은 분만전의 모우에 2회 접종하거나 출생 직후의 송아지에 초유 급여 전 경구투여하고 있다. ☺

〈필자연락처: ☎ 031-467-1747〉